

“학생들 더 나은 환경서 마음 편히 공부하길”

‘전남대에 1천만원 기부’ 이임순 여사

탄핵심판 활약 이금규 변호사 모친

농사일·상무금요시장서 채소 장사

7남매 중 막내아들 모교 2년째 온정

“저는 힘들게 막내아들을 공부시켰지만 지금 전남대 학생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수를 앞둔 어르신이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번 돈을 모아 올해도 아들의 모교에 1천만원을 기부했다.

21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임순 (89) 여사는 최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1천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기탁으로, 누적 기부액은 2천만원이다.

이 여사는 젊어서부터 농사일과 광주 상무



광주 상무금요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모은 돈 2천만원을 지난해와 올해 각 1천만원씩 전남대학교에 기탁한 이임순(왼쪽) 여사와 막내아들 이금규 변호사가 함께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전남대학교 제공>

금요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7남매를 키웠다.

막내아들이 전남대를 졸업해 법조인이 되자 조금씩 모아 온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족에게 전했다.

이 여사의 막내아들 이금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 대표)는 1999년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울산지검, 광주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공정한 법 집행에 헌신했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꾸준히 공

익직 법률 활동을 이어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소추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로 일하고 있다.

이 여사는 “막내를 대학까지 보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전남대가 우리 아들을 훌륭한 법조인으로 키워줘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전남대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하고 앞으로 사회의 재목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지난 6월 이금규 변호사에게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상무금요시장에서 평생 성실하게 일해 오신 어머님께서 막내아들의 모교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임순 여사의 아름다운 뜻을 본받아 대학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광주원에능협,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

담양군은 “최근 광주원에능협이 임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나눔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탁식은 담양군청에서 열린 가운데 정철원 담양군수, 정일기 광주원에능협 조합장을 비롯해 한상봉 상임이사, 김기평 이사(무정면), 조희진 감사(대전면) 등이 참석했다.

광주원에능협에는 다수의 담양 농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육묘장 운영과 농산물 유통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과 협력 기반을 꾸준히 다져오고 있다.

정일기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농업·농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철원 군수는 “기꺼이 기부금을 전달해 준 광주원에능협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기탁된 성금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뜻 깊게 쓰이도록 세심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영암경찰, 여성 상인 대상 범죄예방 강화

영암경찰서는 21일 “여성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취약시간대 탄력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범죄예방전담 담당자(CPO)와 지역 경찰은 관내 여성 1인 점포를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범죄 예방 스티커를 배부, 부작을 당부했다. 또한 탄력순찰 구역을 재정비해 취약시간대 순찰을 확대하고 거점 순찰을 병행했다.

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은 “여성 점주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등문·동창회

●광주대동고총동창회(회장 양승환) 제23회 한마당축제=26일(일) 오전 9시 광주 서구 매월동 모교 운동장.

결혼

▲이해영·전민자씨 장남 로아군, 김민종(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지원본부장·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씨 장녀 현지양=26일(일) 오전 11시30분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노치일(광주시체육회 본부장)·김미자(덕수학교 교사)씨 장녀 민희(병영초교 교사)양=26일(일) 오후 12시30분 광주 드메르웨딩홀 CN홀 2층(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김승남·최영애씨 장남 경민군, 서경원·김은영(담양 월산보건지소 담당)씨 장녀 정양=26일(일) 오전 11시30분 소풍컨벤션웨딩 7층 베일리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 032-624-7777, 010-3232-1768.

▲(故)백길선·박병희씨 아들 성동군, 신현영·정선미(담양군 수북면장)씨 딸 효정양=26일(일) 오후 2시 광주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51(도천동 147-22), 062-228-0000, 010-6876-7883.

부음

▲조임분씨 별세. 차승화·차옥주씨 모친상, 장충모(전남개발공사 사장)·박찬현씨 범모상=발인 23일(목) 오전 6시 성남시의료원장례식장 6호실(010-2774-5747).

국제NGO 코코넛 ‘2025 이웃나눔 바자회’ 성황

국제 NGO단체인 (사)코코넛이 지난 19일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이웃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웃나눔 바자회는 서부 아프리카 취약계층을 돕고, 자원의 재순환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지역업체 등이 후원한 문구류, 생활용품, 아기용품, 의류, 그릇, 신발 등을 저렴하게 판매했다. 지역민뿐 아니라 외국

인, 다문화가족 등 500여명이 방문한 바자회에서는 장바구니를 무료로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사)코코넛은 수익금 및 문구·완구 등을 미안파, 감비아에 후원할 예정이다.

최윤정 (사)코코넛 상임이사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 서부 아프리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희망과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행복교육연, 고려인 초등생 K-POP 노래교실 운영

행복교육연합회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거주하는 고려인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K-POP 문화교류사업’을 위한 일환으로 노래교실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노래교실은 광산구 월곡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광주 K-POP 관광을 홍보하고, 글로벌 관광도시 광주로 거듭나기 위해 광산구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기획됐다.

행복교육연합회가 주관하는 ‘K-POP 문화교

류사업’은 고려인 청소년문화센터와 연계해 광산구 월곡동 일대에서 ‘2025년 고려인 한마당 축제’와 동시에 진행했다.

행복교육연합회는 올해 K-POP을 통한 한류문화 홍보를 위해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관광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연 행복교육연합회 상임대표는 “광주 K-POP 문화교류사업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조선대 유학생들, 충장축제서 4개국 전통음식 제공

조선대학교 RISE사업단은 “최근 광주 충장축제 ‘아시아 문화의 날’ 행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26명과 함께 ‘아시아 길치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몽골·베트남·파키스탄 등 4개국 유학생들이 직접 만든 전통 음식을 시민 300여명에게 제공하며 다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에서 ▲중국 마라꼬치·미티탕후루 ▲베트남 짜조 ▲몽골 호소리(만두) ▲파키스탄 플라오(향신료 밥)와 디저트 등이 제공돼 호평



을 받았다. /박현진 기자

순천시 ‘제1회 전남도 영유아 숲교육대회’ 성료

전남도는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전남지회와 21일 순천 조례호수공원 원형광장에서 ‘제1회 전남도 영유아 숲교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강신영 한국숲유치원협회장, 배해자 전남지회장, 전남도 시·군지회, 학부모와 유치원생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에서는 ‘탄소중립·생명살림·숲사랑 마당’을 주제로 11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탄소중립 마당에선 헌책 배치 만들기과 예코백 꾸미기 등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해 탄소중립

의미를 배우고, 생명살림 마당에선 친환경 생활 용품을 만들며 숲이 주는 자원의 소중함을 느꼈다.

숲사랑 마당에서는 신나는 숲 놀이, 무당벌레 브로치 만들기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협동하고 놀이를 즐기며 숲과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문미란 산림휴양과장은 “미래 세대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숲교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목포 연산동 낙석 피해 주민들에 온정 잇따라

목포 한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 이어지고 있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연산동 한 빌라에 절개지 암석이 떨어져 유리창이 파손되고 도시가스관이 손상돼 7세대 주민들이 임시숙소로 대피했다.

이에 노연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도시가스관이 파손된 4세대에 복구비 246만원, 7세대에 주방세제 등 생필품 54만원 등 총 300만 원을 지원했다.

문현진 연산동 명예동장은 임시 숙소 체류비와 식비 등 80만원, 연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라면·화장지 등 42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노연택 위원장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



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철 연산동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따뜻한 연산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호남대, 광주송정역서 ‘치과기공사 전문성 홍보’

호남대학교는 “최근 치기공학과가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2025 치과기공사 대국민 홍보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알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대한여성치과기공사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전국 14개 시·도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광주 지역에서는 광주시 치과기공사회, 광주치과기공소경영자회, 호남대 치기공학과가 참여했다.

‘정교한 치과보철물은 치과기공사가 제작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행사는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현진 기자



현장에서는 치과기공사가 직접 제작한 보철물 전시, 직무 설명, 리플릿 배포 등이 진행됐으며 시민 2천여명에게 치아·치실 세트를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현진 기자